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전원도시 '오비히로'

홋카이도 동부의 도카치 지역 중부에 위치하는 오비히로는 도카치 지역(1시 16정 2촌-약 35만명)의 중심지이며 농산물 집적지, 상업도시입니다. 1883년 이곳의 본격적인 개척이 시작된 이후 기반 도로망과 계획적으로 시가지를 형성해 왔는데, 미국 워싱턴을 모델로 하여 건설된 이곳은 바둑판 구조의 도시구획으로 도시 전체가 질서정연합니다.

오비히로는 도카치 지역의 교통 중심지이기도 한데 2500미터의 활주로를 겸비한 오비히로 공항과 특급 열차도 지나고 있어 홋카이도 각지로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농가 1호당 경지 면적이 홋카이도 평균보다 높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에서는 여러 농작물이 재배되고 있고 소와 말이 방목되고 있습니다. 케익과 과자류가 맛있기로 유명한 홋카이도 중에서도 이곳은 더욱 특별한 맛을 자랑하며 100엔대의 케익이 있을 만큼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스위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오비히로라는 지명은 아이누어 '오페레페레케프(강어귀가 몇 갈래로 나누어지는 곳)'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 ○ 오비히로 자매도시, 우호도시

오비히로에는 JICA(독립행정법인 국제협력기구) 연수생과 유학생이 세계 각지에서 방문하고 있으며, 현재 교류 중인 지역은 총 3곳으로 시민 간의 교류를 중심으로 우호의 장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 미국 알래스카주 슈어드시 - 1968년 자매도시 체결
- 중국 랴오닝성 차오양시 - 2000년 우호도시 체결
-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시 - 2006년 10월 25일 자매도시 체결



☘ 아치요 목장



☘ 우에무라 나오미 기념관  
1984년 등반 중 행방불명된 등산가 우에무라(植村)의 유품을 전시.



☘ 북쪽의 포장마차  
오비히로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포장마차 거리. 2-3평 남짓의 포장마차 18개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이곳은 2001년 도시활성화의 일환으로 조성된 이후, 일본내 30곳이 넘는 곳에서 이곳을 벤치마킹했다고 합니다. 한국음식을 파는 곳도 있으므로 여행 중 매운 맛이 생각날 때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 ➔ 오비히로까지의 교통편

비행기 - 일본 도쿄~(1일 4편) / 나고야~(1일 1편) / 오사카~(6~9월 1일 1편)  
버스 - 신치토세공항~(1일 4왕복) 약 3시간 30분 소요  
삿포로~(1일 6왕복) 약 4시간 소요  
열차 - 삿포로~(특급 1일 12왕복) 약 2시간 30분 소요

### ☘ 반에이 경마

세계 유일 홋카이도에서만 볼 수 있는 경마로 경주마가 썰매를 끌면서 힘과 속도를 겨룹니다. 홋카이도를 개척한 농경마들의 힘을 겨루는 데서 시작한 반에이 경마는 일반적인 경마처럼 날렵한 말들이 등장해서 박진감 넘치는 속도를 내는 대신, 말들이 1톤이나 되는 썰매를 천천히 끌고 가는 힘든 경기입니다.



한때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지만, 반에이 경마 팬들의 후원과 모금활동으로 그 명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 ☘ 아이코쿠(愛国)역 ~ 고후쿠(幸福)역

1973년 NHK의 프로그램 '신일본기행'에서 '행복을 찾아 떠나는 여행~ 오비히로~'에서 소개된 것을 계기로 아이코쿠(愛国)역에서 고후쿠(幸福)역까지의 차표가 '사랑의 나라에서 행복으로'라는 문구로 한때 붉이 일었습니다. 또한 이 제목의 노래도 인기를 끌면서 이 2곳의 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게 되었습니다. 이 선로는 1987년 2월을 마지막으로 폐쇄되었지만 여전히 행복을 찾아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 【오비히로의 이모저모】

- ◇ 오비히로시(帯広市)의 개요
- 면적: 618.94 km<sup>2</sup>
- 인구: 169,156 명 (2008년 기준)



- 기후: 홋카이도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연평균 기온차가 10.5도로 큰 편입니다. 연평균 기온은 6.5도, 연간 강수량은 약 900mm로 홋카이도 다른 지역보다 적절량이 적습니다. 여름에는 30도가 넘는 정도로 더운 날도 많으며, 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날도 적지 않습니다.
- 산업: 대규모 발농사가 중심으로 시내의 농가 1호당 경지면적은 약 24ha로 홋카이도 평균보다 수치가 높습니다. 주요 작물은 밀, 감자, 사탕무, 콩 등이며 최근에는 마와 우영 등 지역 특산야채도 생산 중입니다.

### 오비히로의 축제

- ◆ 평원 축제 (매년 8월 14~15일)  
홍겨운 북소리가 거리 가득 울려 퍼지고, 본 오도리 공연이 펼쳐지며, 불꽃이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습니다.
- ◆ 얼음 축제 (매년 1월 마지막 주 금~일)  
홋카이도내에서도 추위가 매서운 오비히로의 겨울이지만 대설상과 얼음조각이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합니다.

### 오비히로 명물 「돼지고기 덮밥」



'부타동'이라고 하는 돼지고기 덮밥의 발상지는 바로 오비히로입니다. 이 부타동은 일반 소고기, 돼지고기 덮밥과는 달리 아주 두툽한 고기가 먹음직스럽게 얹어 있는 것이 그 특징으로, 그 소스의 맛도 일품입니다. 부타동은 옛날부터 오비히로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왔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유명해져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꼭 먹는 명물이 되었습니다.

오비히로 관광권컨설팅 협회

<http://www.obikan.jp/ssi-bin/index.shtml>

# 세계자연유산 ◇◇시레토코◇◇

일본의 마지막 비경이라 불리는 시레토코는 홋카이도 동부에서 오호츠크해 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반도입니다. 반도의 길이는 약 70km로 중앙부는 높은 산들로 이어져 있습니다. 시레토코는 아이누어말로 '대지가 끝나는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일본 안에서도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많이 닿지 않은, 원시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는 곳입니다. 시레토코는 바다와 육지의 자연환경이 밀접한 관계를 갖는 풍부한 생태계이며 각종 동식물의 보고라는 점이 높이 평가되어 2005년 7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록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야쿠시마섬, 시라카미 산지에 이은 3번째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시레토코에는 겨울이 되면 유빙이 흘러옵니다. 이 유빙에는 풍부한 영양분이 함유되어 있어 유빙이 녹기 시작하는 봄에는 식물플랑크톤이 대량으로 증가하는데 이는 동물플랑크톤의 먹이가 됩니다. 동물플랑크톤은 작은 물고기의 먹이가 되고, 다시 이 작은 물고기들은 큰 물고기와 갈매기의 먹이가 됩니다. 또다시 큰 물고기는 바다사자와 바다표범, 고래, 흰꼬리수리 등의 먹이로... 이렇듯 시레토코에서는 먹이사슬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바다뿐만이 아닙니다. 강에서는 연어와 송어가 산란을 위하여 자신이 태어난 하천으로 돌아옵니다. 이 연어와 송어는 숲에 살고 있는 큰곰과 여우 등 육상동물의 귀중한 먹이가 되고, 동물들이 먹다 남은 잔해는 부식되어 숲의 초목을 기르는 영양분이 됩니다. 이처럼 시레토코는 바다 생태계와 육지 생태계의 상호관계를 잘 보여주는 자연의 보고입니다.



### 시레토코 5호

시레토코 반도 중간 정도에 위치한 이곳은 울창한 원시림으로 둘러싸인 작고 조용한 5개의 호수입니다. 라우스다케를 비롯한 여러 봉우리들이 이 호수에 비추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신비의 호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1호부터 5호까지 산책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깨끗한 자연과 호흡하며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시의 자연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라 곰이 자주 나타나기 때문에 3,4,5호에는 들어갈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큰곰

시레토코에는 바다와 강, 삼림, 고산, 습원 등 여러가지 형태의 자연이 한데 모여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사는 생물들의 서식지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이 중에는 시마후쿠로(올빼미), 흰죽지참수리, 시레토코 제비꽃 등과 같은 희소종도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바다사자, 고래와 같은 바다의 포유류와 세계에서 보기드문 바닷새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흰죽지참수리



시레토코해안



횡단도로

(위) 오신코신 폭포  
일본의 폭포 100선에도 선정된 이곳은 두 갈래로 뿜어 시원하게 흐르는 물줄기가 장관입니다. 전망대에서는 저 멀리 오호츠크해가 바라다 보입니다.

(위) 후레페노 폭포  
가느다랗게 흐르는 물줄기의 모습이 마치 눈물을 흘리는 처녀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하여 '처녀의 눈물'이라는 애칭으로도 불리기도 합니다.

시레토코 자연센터 홈페이지 (일본어) <http://www.shiretoko.or.jp/>

## 후세에게 전해줄 보물

# 홋카이도 유산

홋카이도 유산이란, 다음 세대에 물려주고 싶은 홋카이도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여기에는 북방 대지에서 살아온 선조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으며 이곳에 사는 사람들, 이곳을 사랑하는 사람들, 미래의 이곳을 창조해 나갈 후세들에게 있어서는 안 될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정되어 있는 52건을 2011년 한 해 동안 나누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 그 첫번째 이야기 삿포로 주변

홋카이도대학 삿포로농학교 제2농장 한 채의 낙농가를 이미지한 일본 농업 근대화의 모델로서 클라크 박사에 의해 구상되었습니다. 내부에 전시되어 있는 농기구들은 근대 농업을 말해주는 귀중한 자료입니다.



삿포로 나에보 지역의 공장과 기념관들 삿포로 맥주박물관, 홋카이도 철도기술관 등은 홋카이도 산업사를 이해하기 위한 귀중한 기념관입니다.



### ▶ 개척사 시대의 서양식 건물



삿포로 시계탑과 도요히라관은 홋카이도 개척사의 업적과 문명개화의 첨단을 달린 홋카이도의 기풍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http://www.hokkaidoisan.org/>